

“투표로 새 세상 열어요” 스타들 릴레이 투표 독려



윤은혜



이동욱



박보영



홍진경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사회관계 망서비스(SNS)에는 투표를 독려하는 스타들의 글이 이어졌다.

가수 이은미는 투표장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과 함께 “말보다 행동으로, 나의 마음을 담은 한표를 남겼다. 여러분도 소중한 한표 잊지 마세요”라고 적었다.

모델 겸 배우 변정수도 “귀찮다고 포기하지 말아요”라며 투표를 당부하는 글을 남겼다.

가수 겸 배우 윤은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소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여러분 우리 오늘 꼭 투표해요”라고 썼다.

작가 겸 방송인 광정은 손등에 투표도장이 찍힌 인증샷을 올리며 “얼마나 오늘을 기다려왔는지 모르겠다. 내 소중한 한 표의 힘을 발휘하는 일이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그룹 에이티즈 홍중과 성화, 가수 선미, 헤이즈, 폴킴,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윤덕원,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김호영 등이 사진을 공유하며 투표에 참여

한 사실을 알렸다.

배우 박보영, 문정희, 강말금, 코미디언 박성광도 투표 완료 인증에 동참했다.

배우 이동욱은 지난 1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힌 그는 “투표는 최악을 막는 것이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택하고, 차선이 없다면 차악을 택해 최악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과 가수 아이유, 윤종신, 이승환, 배우 김고은, 김의성 등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 인증 사진을 공유했다.

한편 모델 홍진경은 대통령 선거일 전날 붉은색 옷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게시글을 삭제했다.

홍진경은 “디자인이 재밌다는 생각에 사진을 올렸는데, 입고 있던 상의 색상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두가 민감한 이 시기에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썼다. /연합뉴스

팔순에 첫 시집…노시인의 ‘삶에 대한 회고’

정읍 출신 이정순 시인, 시집 ‘내 일기장 속의 비밀’ 펴내

팔순을 맞아 첫 시집을 펴낸 늦깎이 시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최근 시집 ‘내 일기장 속의 비밀’ (한림출판사)을 발간한 이정순 시인.

전북 정읍 출신인 이 시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결혼 후 서울, 철원, 광주 등에서 살았다. 그러다 지난 2015년 장성으로 이주해 그토록 원했던 문학공부를 시작했다.

뒤늦게 문학에 입문한 이유는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20여 년을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병수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극 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하던 중 병세가 호전되고 휠체어를 타고 거동할 수 있게 되자 장성군립중앙도서관 문예창작반에서 문학공부를 시작했다.

반에서 문학공부를 시작했다.

여렸을 때부터 글쓰기와 문학에 흥미가 있었던 터라 그의 창작 실력은 일취월장 성장했다. 지난 2019년 전남백일장 차상, 2021년 문학춘추 신인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렇게 창작해 몰두한 결과 이번에 첫 감격의 작품집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작품집은 지나온 삶에 대한 회고, 일상이 주는 잔잔한 감동,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바람 등을 담은 소박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시에 대한 진심, 시를 대하는 마음 등이 오롯이 담겨 있어 깊은 의미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7일에는 80회 생일을 맞아 장성군립도서관에서



관에서 지인들과 가족, 문우들의 축하를 받으며 조출한 시집 출판 기념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현영 장성군 문화교육과장, 기일혜 소설가, 김성주 전 장성문화원장 및 수강생들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한편 박형동 시인은 축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슴이 시커멓게 썩은 ‘고목’에서 돌아온 몇 송이 안 되는 꽃”이라며 “이정순 시인의 시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관객과 더 가까이 ‘로비 콘서트’ 광주시립합창단, 1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가 아닌 대극장 로비, 햇살이 자연스럽게 스미는 공간에서 합창의 울림이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6월 11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에서 기획연주회Ⅲ ‘어울림’을 선보인다. 관객과 한결을 가까이 호흡하는 이 무대는 음악의 매력을 더 친근하게 전하고자 마련된 특별한 자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울림’ 시리즈는 객석을 벗어나 공간의 울림을 살린 로비 콘서트로 관객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는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유럽·아프리카·미주 등 다양한 문화권의 합창곡으로 채워진다.

공연의 막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로 연다. 활기찬 음색이 아름다운 이 곡은 마치 시칠리아에서 오렌지 꽃 향기를 맡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민요 ‘Jambo (안녕)’, 러시아 민요 ‘Kalinka Katiushka(칼린카 카추샤)’도 이어져 각각의 고유한 리듬과 선율로 세계 각국의 정서를 전한다. 미국의 서정적 민요 ‘Shenandoah(세넨도어)’, 폴 밀러의 ‘Peace(평화)’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광주시립합창단의 지난해 어울림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공연의 백미는 세계 민요 메들리. 영국의 ‘런던

다리’부터 한국의 ‘아리랑’까지, 다양한 문화의 노래가 이어져 흥겹고도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피날레는 윤지영 편곡의 혼성합창 ‘비행기’로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전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광주 고려인마을’

광산구, 역사 등 담은 ‘고려인마을에 놀러와’ 유튜브 공개

광주 고려인마을의 깊은 역사와 정겨운 일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담아낸 작품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와 광주고려인마을은 최근 애니메이션 ‘고려인마을에 놀러와’를 고려인마을 유튜브 채널(nanum otvo)에 공개했다. 이 작품은 고려인 소녀 율리와 친구 한결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인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풀어낸다.

애니메이션은 조선 말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아픈 역사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 그리고 흥분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한 그림체와 내레이션으로 풀어낸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잃지 않으려 했던 고려인들의 삶을 알기 쉽게 묘사해 감동을 전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고려인문화관, 문빅토르미술관, 흥분도공원, 전통의상체험관 등 마을의 주요 명소들이 애니메이션 배경으로 등장해 아국적이면서도 친



근한 마을 풍경을 실감나게 전달한다.

애니메이션은 고려인마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고려인문화관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며, 향후 교육 자료와 관광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